

우리의 군사독재타도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읍니다!

- "애국학생 고 이한열 열사 민주국민장"을 치르면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

1987년 7월 5일 새벽2시, 민주열사 이한열 군은 이제 곧 다가올 군사독재정권이 끝
장나는 그날을 보지 못하고 온 국민의 안타까움 속에서 영원히 눈을 감았읍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군사독재정권은 '6.29선언 - 노태우 민주화'를 떠들어대며 무너
져가는 자신의 세력을 수습하려는 한편, 이군의 시신을 시민과 학생으로부터 탈취하기 위
해 '압수할 물건 - 이한열의 사체1구'란 내용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으며, 이에
분노한 교내시위대에 최루탄을 무차별 난사하여 또다시 17명의 학생에게 부상을 입혔읍니
다.

뿐만아니라 군사독재정권은, 이한열군의 죽음이 민주와 자주를 갈망하는 온 국민의 아
픔이며 따라서 당연히 그 장례식은 한열이를 떠나보내고 남은 우리가 그의 주검을 딛고
일어서 독재타도와 반외세자주화의 범국민적 애국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엄숙한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 아픈 상처는 덮어두자", "한 사람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는 등의 터무니없는 말로써 북물처럼 터져나오는 국민의 민주화열기를 깔아뭉개고,
이 땅의 민주와 자주를 외치다 스러져 간 한열이의 뜻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의 허울좋은 '민주화'의 실체는 민주열사 고 이한열군 국민장 준비에 대한
군사독재정권의 탄압을 통해 이제 보다 명백하게 드러났읍니다. 그것은 바로 박정희군사독
재정권이 부마민중항쟁에 의해 붕괴되었듯이 6.10대회 이후의 전국적인 반독재투쟁을 통
해 자신의 군사정권 역시 조만간 붕괴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민중의 애국투쟁에 비굴한 웃
음을 띠며 조금씩 뒷걸음질치는 '민주화'인 동시에, 우리가 독재타도의 고삐를 조금만 늦
추면 국민의 민주화 자주화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꺼져가는 대외예속적인 군사독재정권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민주화'인 것입니다. 80년 학살된 2천여
명의 광주시민의 피가 채 마르지 않은 더러운 입술에서 나오는 '민족적 대화합의 민주화'
라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이며, "광주사태는 없었던 일로 하자"는 광주학살 원
흉들의 '민주화'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군사독재정권의 부리가 완전히 뽑혀지지 않은 지금, 우리의 군사독재타도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읍니다. 이제 "애국학생 고 이한열 열사 민주국민장"을 치르면서 우리는,

우리의 소심함과 이기주의를 대속하여 산화한 이한열 열사의 주검을 딛고 힘차게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더욱 굳게 어깨잡고 함성도 드높게 군사독재타도의 대열로 삼천리 방방곡곡을 뒤덮어야 할 것입니다.

자, 높이 들어라, 함껏 흔들어라, 군사독재타도의 깃발을!!

우리의 주장

- 광주학살의 원흉 전두환, 노태우를 응징하자!
- 한열이 뜻 이어받아 군사독재 타도하자!
- 군사독재 타도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
- 독재조종 내정간섭 미국을 몰아내자!

1987. 7. 8

민주헌법쟁취문화인공동위원회

민족미술협의회(738-3767) 민주교육실천협의회(333-2011)
민주언론운동협의회(719-1064) 민중문화운동연합(312-5393)
자유실천문인협의회(718-7153)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717-8515)

** "애국학생 고 이한열 열사 민주국민장" 안내

- 1) 장례일시는 7월 9일 오전 7시이며, 장소는 연세대학교 노천강당입니다.
- 2) 발인은 8시 30분이며, 연세대학교 교문에서부터 시청까지 (연세대 → 신촌로타리 → 이대 → 아현동 → 광화문 → 시청) 운구 서행 및 인도를 통한 행진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시청 → 고속도로(시청 → 을지로 → 약수동 → 한남동 → 제3한강교 → 고속도로) 구간은 운구차로 이동합니다.
- 3) 광주까지는 버스를 이용하고 광주노제는 당일 6시에서 7시경 광주 진흥고등학교에서 거행될 예정이고 오후 7시 30분경 광주 망월동 5.18묘소에서 하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 4) 국민행동지침 - *9일 정오를 기해 모든 국민은 묵념을 올리고 교회와 사찰에서는 추모타종을 한다.
*추모기간은 11일까지이며 추모기간 중 모든 국민은 검은색 리본을 착용한다.